

2006. 11

November

광학특집

한국광학기기협회 소식

한국광학기기협회 이중구 회장 초청, 임원사 'Green Meeting' 가져

이중구 회장 초청으로 협회 임원사 대표들 간의 친선 골프모임이 지난 10월 19일 레이크사이드 골프장에서 있었다. 답답한 회의실과 격식을 떠나 청명한 가을날씨 속에 녹색 잔디에서 가진 이번 모임은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임원사 대표들은 유쾌한 만남을 갖은 자리에서 회원사간 친목을 다지고 협력을 도모하자는 공동 목표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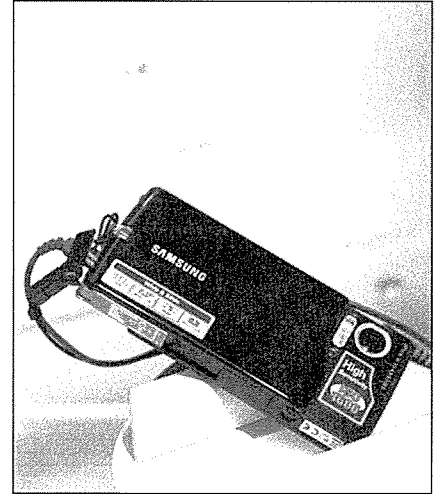
올해 3월 24일 협회 취임 인사에서 “국내 광학산업 및 업체들의 공동발전을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바대로, 이중구 회장은 취임 후 회원사간의 유대강화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러한 이회장의 적극적인 의지에 따라 임원사 초청 상견례 모임 이후 골프모임을 갖고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전체 회원사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모임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협회에서는 광학업체들의 공동발전을 위해 올해부터 업종별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광학산업 중장기 로드맵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라운딩에 앞서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사진 왼쪽부터 한국광학기기협회 이택희 부회장, 삼양옵틱스 문영기 사장, 캐리마 이병극 사장,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김대곤 사장, 하나기술 김도열 사장, 한국광학기기협회 이중구 회장(삼성테크윈 사장), 디오스텍 한부영 사장, 세코닉스 박원희 사장, 산주 김기철 사장, 이오시스템 이원승 사장, 부원광학 박형기 사장, 한광옵토 노원복 사장)

광학신상품

삼성전자(주), 멀티미디어 기능의 디지털 카메라 출시



▶삼성전자의 디지털카메라 'SDC-MS61'

삼성전자(대표·윤종용)는 작년 8월 선보인 디지털카메라 '미니켓 포토'의 후속 제품인 'SDC-MS61'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미니켓 포토처럼 사진과 동영상뿐만 아니라 MP3, 음성 녹음, 웹 카메라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갖춘 신제품은 휴대폰에 주로 쓰인 슬라이딩 방식을 적용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3인치 와이드 LCD와 몇 개의 버튼만 노출돼 마치 작은 휴대형 멀티미디어 플레이어(PMP)처럼 보이는 외관이지만 전면과 후면을 좌우로 엇갈리게 밀면 감춰진 렌즈와 플래시, 5방향 조작키 등이 나타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600만 화소를 지원하고 3배 광학 줌이 내장돼 일반 슬림형 디지털 카메라와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최근 디지털 카메라 업계에 불고 있는 고감도 트렌드를 반영, 감도 160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삼성테크윈(주), 1000만 화소급 DSLR 카메라 출시

삼성테크윈(대표·이중구)이 1년간 일본 팬탁스와 공동 개발한 1000만 화소급 디지털 일안 반사식(DSLR) 카메라(모델명·GX-10)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작년 10월 삼성테크윈과 팬탁스가 DSLR 카메라 사업 제휴를 맺고 함께 개발한 첫 제품으로 소프트웨어 부문에 삼성테크윈의 기술이 담겨 있다. 삼성테크윈은 올 1월 자사 브랜드로는 처음으로 DSLR 카메라 'GX-1'을 내놓은 바 있지만 이는 팬탁스가 삼성테크윈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공급한 모델이다.

'GX-10'은 1000만 화소급 CCD와 11개의 측거점에 의한 오토 포커스(AF) 기능, 팬타프리즘 등을 갖췄으며 감도(ISO)는 최대 1600까지 지원한다. 물·모래·먼지로 인한 카메라 내부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 설계를 적용했으며, 초당 3장의 속도로 일반 연사 촬영이 가능하다. 또 로(raw) 파일(원본 이미지 저장방식)도 같은 속도로 최대 9장까지 촬영할 수 있고 원터치 버튼으로 JPEG 촬영중 로 파일로 변경할 수 있다.



▶삼성테크윈에서 선보인 1000만 화소급 DSLR 'GX-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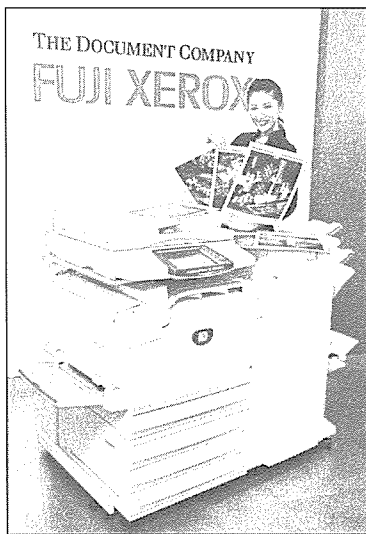
한국후지제록스(주), 컬러 복합기 6개 모델 대거 출시

한국후지제록스(대표·정광은)가 지난 10월 16일 새 모델 6개를 대거 출시하고 컬러 복합기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들 제품은 웹 서비스 표준 기술인 XML을 사용한 아키텍처 플랫폼 기반 제록스 '아페오스(Apeos)' 기술로 문서 흐름·관리·모바일·사용자 맞춤 서비스를 결합해 모든 문서를 하나의 포털에서 관리하고 패스워드 암호화·디스크 덮어쓰기·문서 잠금 등 더욱 강력한 보안 기능을 제공한다. 또 문서 출력과 복사 속도는 분당 흑백 45·35·26장, 분당 컬러

35·31·26장으로 흑백과 컬러 모두 1200×1200dpi로 높은 출력 품질을 지원한다. 기존 토너와 비교해 크기와 모양이 좀더 균일한 초정밀 입자로 구성된 'EA-HG 토너' 사용으로 생생하고 선명한 출력이 가능하다.

이 회사 황홍국 실장은 "이번에 선보인 제품은 스캔에서 출력·복사·팩스 작업 구현과 문서 흐름 서비스, 보안까지 5가지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디지털 복합기"라며 "이를 주력으로 컬러 오피스 시장의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후지제록스에서 선보인 컬러 복합기 '아페오스 C4300'

한국후지제록스(주), 보급형 컬러 복합기 출시

한국후지제록스(대표·정광은)가 보급형 디지털 컬러 복합기 '도큐 센터-II C3000'을 출시했다.

흑백 사무용 복합기 대체 용도로 선보인 이 제품은 흑백 제품과 같은 크기의 콤팩트형으로 복사·팩스·프린터·스캔 기능과 더불어 고품질 컬러 성능을 구현할 수 있으며 흑백 분당 32장 출력을 자랑한다. 환경 친화 EA-하이 그레이드 토너를 장착해 1200×600dpi의 높은 출력 품질을 지원한다. 30초에 불과한 예열 시간과 고객도 설치 가능한 옵션으로 설치 시간을 단축하고, 유지 보수 시간을 최소화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스캔한 문서를 팩스·e메일 등 여러 수신 대상으로 서버를 사용하지 않고 발송하고 팩스로 전송할 때 전송되지 않은 문서를 삭제하지 않고 저장할 수 있다. 스캔 문서의 패스워드 암호화 기능 설정으로 보안 서비스를 강화했다.



▶한국후지제록스가 선보인 보급형 디지털 컬러 복합기 '도큐 센터-II C3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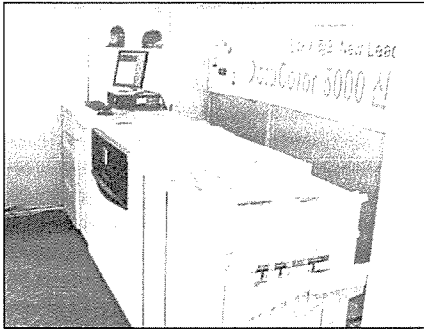
한국후지제록스(주), 디지털 인쇄 프린팅시스템 '도큐 컬러 5000' 출시

한국후지제록스(대표·정광은)가 지난 10월 26일 서울 본사 배재정동빌딩 쇼룸에서 제품 발표회를 열고 디지털 인쇄 프린팅 시스템 '도큐 컬러 5000'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2400x2400dpi 고품질로 이미지를 재현해 보다 생생하고 깔끔한 컬러 표현이 가능하다. 컬러 출력 속도가 분당 50매로 코팅 용지나 고중량 용지에서도 출력 속도가 떨어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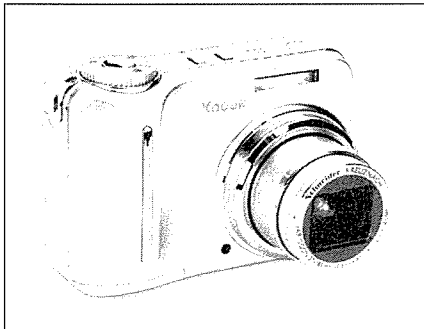
최대 인쇄 사이즈를 320×488mm로 확대했고 '인-라인' 후처리기를 통해 최대 8000매에 달하는 대형 출력 작업을 실행해 업무 생산성을 높였다. 작업 중에 토너 교체는 물론 검정색 토너 카트리지를 2개 장착한 상태에서 장시간 출력이 가능하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더 많은 운영자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유연성이 뛰어나 사용하기 편리하며 자신만의 용지 프로 파일을 만들어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회사 손문생 사장은 “뛰어난 성능과 적정 가격을 갖춘 이번 신제품을 통해 인쇄 시장에서 한국후지제록스의 입지를 강화하는 한편,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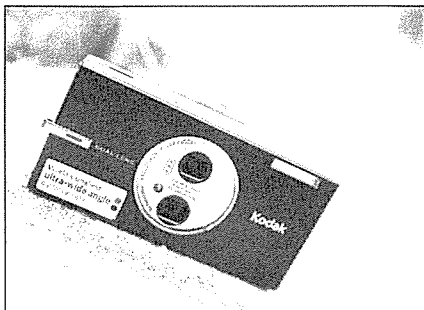


▶한국후지제록스가 선보인 디지털 인쇄 프린팅 시스템 '도큐 컬러 5000'

한국코닥(주), 프리미엄급, 패밀리형 콤팩트 디카 2종 출시



▶플수동 기능을 지원하는 코닥의 800만 화소급 디카 '이지쉐어 C8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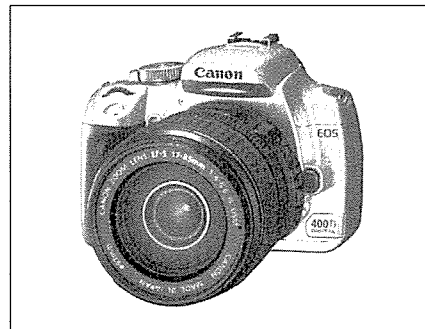


▶700만 화소의 듀얼렌즈 프리미엄급 디카인 코닥의 '이지쉐어 V705'

한국코닥(대표·김군호)이 프리미엄급 디카와 패밀리형 콤팩트 디카를 각각 새롭게 선보였다.
먼저 고급스러운 스타일에 최고의 성능

까지 갖춘 700만 화소의 프리미엄급 디카인 '이지쉐어 V705'는 코닥만의 기술인 레티나 듀얼렌즈 테크놀로지를 통해 23mm 초광각과 5배 광학줌을 동시에 구현하는 초광각 광학줌 디카이다. 또한 퍼펙트 터치와 흔들림 방지 기술을 통해 보다 선명하고 자연스러운 촬영이 가능하다.

플수동 기능을 지원하는 패밀리형 콤팩트 디카인 '이지쉐어 C875'는 800만 화소로서 광학 5배줌과 함께 수동모드(PASM)를 지원하며 최상의 장면 모드를 자동으로 골라주는 스마트 장면 모드 기능이 탑재돼 있다. 또한 퍼펙트 터치와 흔들림방지 기술로 선명하고 자연스러운 촬영이 가능하다.



▶1010만 화소의 CMOS센서와 2.5인치 LCD모니터를 장착한 캐논의 보급형 DSLR 'EOS 400D'



▶수동기능을 내장한 카메라로 카메라 매니아 및 하이엔드 아마추어가 타깃인 캐논의 '퍼워샷 G'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주), 하반기 전략 신제품 16종 출시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대표·강동환)이 지난 9월 20일 서울 남산 N 서울타워에서 하반기 신제품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선보인 신제품은 DSLR 1종, 렌즈 2종, 콤팩트 디카 7종, 캠코더 3종, 포토

프린터 3종으로 총 16종이다. DSLR라인에서는 히트상품 EOS 350D의 후속으로 EOS 400D가 출시돼 그 계보를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라인업이 강화된 콤팩트 디카부문에서는 'DIGIC III 이미징 프로세서'로 인한 1000만 화소 고화질 이미지 구현과 ISO 1600의 고감도 촬영, 손떨림 보정 기능, 2.5인치 LCD 모니터 탑재 등 상당 부분 업그레이드된 성능을 자랑했다.

회원사 동정

신규회원 가입-정회원(1개 사)

두손정밀(주)

- 대표 : 서정화
- TEL : (055)342-0050
- FAX : (055)342-0770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300-6번지
- 홈페이지 : www.dspm.co.kr
- 주요품목 : 카메라, 휴대폰 아크린 Window류

신규회원 가입-특별회원(3개 사)

기진정밀

- 대표 : 손기진
- TEL : (055)232-1454
- FAX : (055)232-3573
- 주소 : 경남 마산시 내서읍 중리공단 1127-9
- 홈페이지 : www.kijinprecision.com
- 주요품목 : 카메라 및 캠코더 경통 및 부품

대산티에스티(주)

- 대표 : 권혁만
- TEL : (055)252-3592
- FAX : (055)252-3594

- 주소 : 경남 창원시 동읍 봉산리 262
- 주요품목 : 카메라 및 카메라폰 부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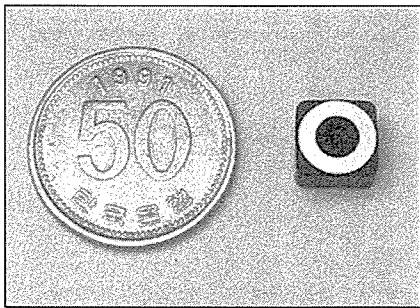
ZEROCS 코퍼레이션

- 대표 : 정사미
- TEL : (031)714-4647
- FAX : (031)716-4657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1 청구빌딩 1002
- 홈페이지 : www.zeroocs.com
- 주요품목 : 디지털 카메라 및 캠코더용 화이트 밸런스 필터

(주)디오스텍, 액추에이터 일체형 렌즈모듈 개발

디오스텍(대표·한부영)은 초점을 맞추기 위해 렌즈를 움직이는 액추에이터와 렌즈를 하나로 묶은 렌즈모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200만 화소 이상 고화소 카메라 모듈에는 자동초점 기능이 필요한데 이 제품은 여기에 사용된다. 디오스텍은 각각 다른 크기의 렌즈를 겹쳐 생긴 공간에 액추에이터를 넣는 계단식 설계방식으로 이 제품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액추에이터 일체형 렌즈모듈은 크기를 줄일 수 있다. 이 제품은 가로와 세로가 7.9mm이고 두께는 4.6mm에 불과하다. 디오스텍 측은 크기뿐 아니라 자사 기존 제품에 비해 부품 수를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어 가격경쟁력이 높다고 설명했다.



▶디오스텍에서 개발한 액추에이터 일체형 휴대폰용 카메라 렌즈모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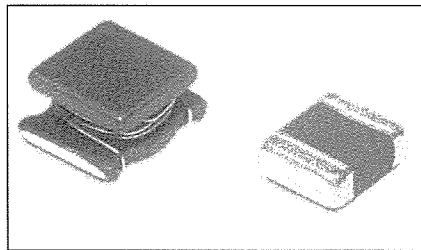
삼성전기(주), 모바일기기에 사용되는 초소형 파워 칩인덕터 개발 성공

삼성전기(대표·강호문)는 휴대폰이나 디

지털카메라와 같은 모바일기기에 사용되는 4.7μH급 초소형 파워 칩인덕터를 개발,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인덕터란, 전자 제품의 입·출력 부분에서 콘덴서와 함께 전기 잡음을 걸러내는 필터역할을 하는 전자회로 필수 구성요소로, 파워 인덕터는 직류전류를 가했을 때 일반 인덕터보다 용량 변화가 적은 효율성 높은 인덕터를 말한다.

삼성전기가 이번에 개발한 파워 인덕터는 가로 2.5mm, 세로 2.0mm, 두께 1.0mm 크기(2520)의 적층형 제품으로, 기존 권선형 3530(3.5mm×3.0mm×1.25mm) 제품보다 60% 이상 부피가 작고 가격도 30~40% 저렴하다. 이 제품은 칩 형태로 제작돼 실장 효율이 높고 열과 기계적 충격에 강하며, 환경유해물질인 납을 사용하지 않아 유해물질제한지침(RoHS)을 만족한다. 인덕터에서 가장 중요한 전기적 특성인 'DC-Bias특성'(직류 전류를 가했을 때 변화되는 인덕턴스)도 우수하다. 이 제품 개발을 통해 삼성전기는 2520 파워 칩인덕터 부문에서 1μH~4.7μH까지 5종의 제품으로 라인업을 갖추게 됐으며, 2012와 1608 크기의 소형 파워 칩인덕터 시장 공략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삼성전기가 개발한 4.7μH급 2520 파워 칩인덕터(오른쪽)와 용량이 같은 3225 권선형 제품을 비교한 모습. 크기가 60% 가까이 작다.

(주)신도리코, 시그마플러스와 제휴, POP 월드 출시

신도리코(대표·우석형)가 POP 솔루션 업체 시그마플러스(대표·박승구)와 손잡고 'POP월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휴로 두 회사는 신도리코 컬러 복합기와 레이저 프린터를 기반으로 유통매장의 POP(Point of Purchase)물을 손

쉽게 제작해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시그마플러스의 POP월드는 미국·중국 등 세계 12개국에 수출 중인 글로벌 솔루션으로 관련 프로그램과 컬러 출력기만 있으면 원하는 디자인과 크기로 필요한 수량만큼 출력할 수 있다. 이 제품은 세부 기능으로 POS 데이터와 엑셀 파일 등을 별도 변환 과정없이 작업할 수 있는 POS 링크 시스템, 디자인 서버 기능으로 통합 디자인 관리가 가능한 그룹웨어 시스템 등을 지원한다. 또 물류·우편번호 등 다양한 바코드를 제작하고 고객 발송용 DM 뿐 아니라 개인별 뉴스레터·카탈로그·공연 티켓 등 다양한 판촉물을 쉽게 제작할 수 있다.



▶시그마플러스 박승구 사장과 신도리코 김윤선 영업본부장(사진 왼쪽)이 참석한 가운데 조인식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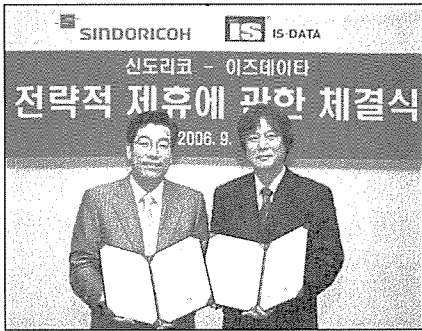
(주)신도리코, 이즈데이터와 손잡고 PMS 진출

신도리코(대표·우석형)가 이즈데이터와 함께 프린터 자산관리 솔루션 'PMS'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가 내놓은 PMS는 출력관리 시스템과 보안 체계를 기반으로 네트워크로 연결된 모든 프린터의 조직·개인별 출력 정보는 물론 전원 상태·토너 교체 횟수와 같은 자세한 기기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제공해 준다. 또 제조사·기종에 상관없이 프린터를 통제할 수 있는 기능, 프린터 통계와 출력 통계 정보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하는 기능, 프린터 자산의 비용 발생 정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했다. 특히 자체 개발한 가상 프린터 드라이버를 통해 잉크와 토너 등 소모품 사용량을 분석하고 최적의

절약 모드를 설정할 수 있다. 문서 출력 중에도 긴급 출력물이 있으면 대기 없이 바로 출력하는 우선 순위 출력 기능도 지원한다.

신도리코는 이번 제휴로 제품 개발 뿐 아니라 영업과 기술 노하우를 공유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용선 신도리코 영업본부장(사진 왼쪽)과 이종희 이즈데이타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성수동 신도리코 본사에서 열린 조인식 광경

(주)이엔쓰리, 사업장 이전 및 연락처 변경
환경관련 신기술 개발 및 실용화에 주력하고 있는 이엔쓰리(대표·김승우)가 지난 9월말 사세확장과 함께 사업장을 이전했다.

새로 이전한 주소는 서울시 중구 남산동 2가 27-1번지 사보이빌딩 2층이고, 전화번호는 02-2021-7115, 팩스번호는 02-2021-7110이다.

존테크, 사업장 이전 및 연락처 변경

광원장치 및 각종 광학검사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존테크(대표·최상규)가 지난 10월 1일 사세확장과 함께 사업장을 이전했다.

새로 이전한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80-3 디지털엠파이어 빌딩 E동 605호이고, 전화번호는 031-303-5858, 팩스번호는 031-303-5855이다.

한국후지제록스(주), 리인터내셔널과 첫 XOS 서비스 계약

한국후지제록스(대표·정광은)가 지난 9월 27일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와 종합 문서 관리 서비스 '제록스 오피스 서

비스 비즈니스(XOS)'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후지제록스가 XOS 솔루션을 선보인 이후 구축한 첫 업종별 사례다.

이번 계약으로 리인터내셔널에는 스캔 작업 사무기기 통합 관리를 지원하는 인력이 배치돼 신속하게 장애에 대응하며 모든 사무기기를 네트워크로 묶어 부서와 기기별 프린트 출력 현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앞으로 5년 동안 137대 장비를 30대로 줄여 비용도 크게 절감시킬 계획이다.

이 회사 손문생 사장은 "특히 법률 업종 특성상 웹 팩스 서버와 스캔 서비스 등 일반 사무환경과 차이가 있다" 며 "이번 사례를 기반으로 XOS 서비스를 전 분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XOS는 기업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해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사무 환경을 구축하지는 취지로 제록스가 제안한 아웃소싱 서비스다.



▶리인터내셔널 서영제 대표변호사와 한국후지제록스 손문생 사장(사진 오른쪽)의 조인식 광경

한국후지제록스(주), 인쇄 컨퍼런스 참가



▶한국후지제록스 부스 전경

한국후지제록스(대표·정광은)가 지난 9월 6일부터 10일까지 한국국제전시회장에서 열린 '15회 국제인쇄산업전시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후지 제록스는 성도GL과 함께 자체 부스를 통해 디지털 컬러 인쇄기 '도큐 컬러 8000'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2400dpi로 인쇄 품질이 뛰어나고 A4기준 월평균 30만 매까지 출력할 수 있다. 9월 8일에는 컨퍼런스센터에서 김시문 상무가 '디지털 인쇄시장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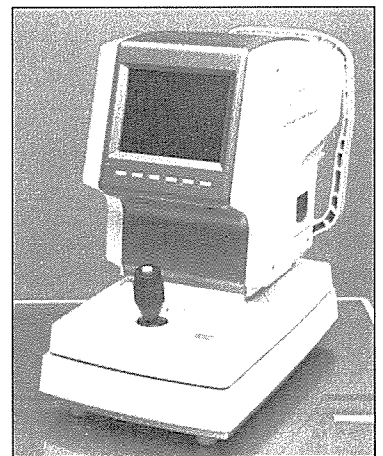
(주)휴비츠, 목원대와 함께 최첨단 검안기 개발

휴비츠(대표·김현수)는 목원대 기술마켓팅학과 고동섭 교수팀과 함께 최첨단 검안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검안기는 핵심기술인 '미소렌즈어레이 제조장치'를 자체 개발, 광간섭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시력측정 정밀도를 크게 높였다.

목원대는 2002~2004년 산업자원부로부터 산업기술개발 과제 지원을 받아 2년간 기술개발을 진행했으며, 휴비츠는 목원대로부터 연구결과를 이전받아 의료기기 인증, 내구성 실험, 디자인 설계 등을 거쳐 최근 상품화에 성공했다.

이 검안기는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광학박람회에 전시됐는데 조만간 시장에 본격 출시될 예정이다.



▶휴비츠와 목원대가 개발한 검안기

광학이벤트

대구국제자동화기기전 및 부품소재산업전

11월 1일~4일까지, 대구EXCO에서 열려 자동화기와 부품소재관련 제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제7회 대구국제자동화기기전(DAMEX 2006)과 제1회 대구국제부품소재산업전(PARTSHOW 2006)이 대구전시컨벤션센터(EXCO)에서 동시에 열린다.

11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 동안 1층과 3층 전시장에서 열리는 대구국제자동화기기전은 공장자동화, 로봇, 제어계측기기 등 각 분야에서 총 10개국 150여 개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다.

지역에서는 한국OSG와 삼익THK, 메트로닉스 등이 참가하고, 해외기업으로는 미쯔도요(일본), 엠엔씨테크(대만), 한국NI(미국) 등이 참가한다.

또 같은 기간 동안 5층 전시장에서 열리는 대구국제부품소재산업전에는 일반 및 정밀기계, 로봇기기, 전자전기부품, 세라믹 등의 분야에서 총 6개국 70여 개 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다.

제4회 광기술교육연구회 산학연 워크샵

11월 17일, 인하대학교 정석학술정보관에서 열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광기술교육 산학연 워크샵이 11월 17일 인하대학교 정석학술

정보관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여러 광기술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 최근의 광기술 동향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광기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연구 개발 결과를 포스터로 발표하고 이를 통해 연구 및 개발의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는 기술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또한 대학에서 광기술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의 연구 발표를 통해 학생 및 산업체의 구인 및 구직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산업체의 신제품 전시도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광기술교육센터 홈페이지(<http://otec.inha.ac.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팩스(032-874-8306)나 e-mail(webmaster@otec.inha.ac.kr)로 보내면 된다. 또한 전시를 원하는 업체에서는 전시 신청서를 11월 10일 전까지 팩스(032-860-8675)나 e-mail(webmaster@otec.inha.ac.kr)로 보내면 된다.

광학인포메이션

나노광학현미경 측정법, 국제규격으로 채택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5월 제안한 나노광학현미경 측정법이 국제표준화기구(ISO) 정회원국의 만

장일치로 국제규격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측정법은 기술표준원과 인천대학교 김정용 교수의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됐다.

기표원은 빛을 매개체로 하는 나노광학 현미경을 이용하면 전자현미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뿐 아니라 빛의 속도를 갖는 광 반도체 개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나노광학현미경은 기존의 광학현미경으로는 불가능했던 나노(10억분의 1) 영역에서의 광학적 특성 관찰, 반도체 나노구조물 제작 등이 가능하고 세포막에 박혀 있는 단백질들의 움직임을 볼 수 있어 물리학 뿐 아니라 화학, 생물학, 공학 등 광범위한 나노산업분야에서 이용되는 분석 도구다.

산업자원부, 세계 일류상품 생산기업 맞춤형 지원

산업자원부는 전문 컨설턴트와 유관 지원기관 등으로 프로덕트 매니저(PM : Product Manager)팀을 구성, 매년 10개 내외의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세계 일류상품 PM 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PM은 신제품의 개발과 상품화를 추진하는 전문가 그룹으로 설계에서부터 제조, 판매까지 각 부분의 연락과 조정을 통해 좋은 신제품이 시기에 맞게 생산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세계 일류상품 생산기업은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의 품목이

한국후지제록스(주), 11월 27일까지 포토북 디자인 공모전 개최

한국후지제록스(대표·정광은)가 9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전국 2년제 대학 이상 디자인학과 재학생과 휴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06 XCPD 어워드'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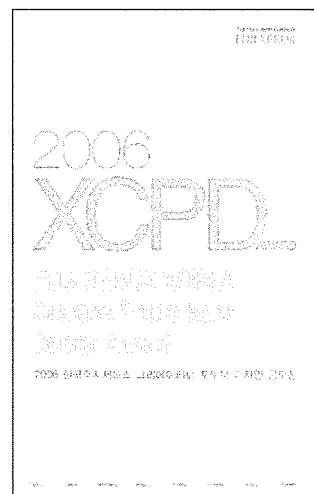
이번 공모전은 인쇄물 실무 작업을 하는 디자이너에게 한국후지제록스 디지털 인쇄 기술을 알리고 이 분야 선두기업으로 이미지 제고와 인지도 확대를 위해 마련했다.

공모 주제는 자유이며, 다양한 형식으로 편집·제본된 포토북을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

다. 출력작 크기와 제품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출력 작품은 한국후지제록스의 자료로 활용된다.

1등(1명)에게 상금 300만원 등이 주어지며 수상자는 12월 1일 한국후지제록스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시상식은 12월 5일 한국후지제록스 본사에서 공모전 참가자와 기타 고객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한국후지제록스 디지털 인쇄 세미나"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 문의: 홈페이지 www.fujixeroc.co.kr



나 3년 이내에 5위권 진입이 가능한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로 산자부가 선정한다.

산업자원부, 민원상담 처리서비스 전문인력 배치 등 대폭 개선

산업자원부가 민원상담 처리서비스를 대폭 개선한다.

과천 청사 내 산자부 건물 1층에는 '고객 감동센터'라는 회의실이 만들어졌다. 민원인과 공무원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얘기하거나 간단한 회의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전문상담인력 5명을 채용해 고객 민원을 듣고 빠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원인 전문 상담전화도 개설했다. 추가로 콜 센터 장비도 도입해 민원 응대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 민원인 전문상담전화 : 02-2110-5567~70

광학뉴스라인

DSLR는 '렌즈교환식' 아닌 '일안반사식' 카메라가 맞아

최근 디지털 카메라, 휴대폰 등으로 인해 사진 저변이 확대되면서 DSLR 카메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조업체들도 저렴한 DSLR 카메라를 내놓으면서 바람몰이에 나선 상황. 그러나 DSLR 카메라의 원리가 잘못 알려지는 경우가 많다. 흔히 DSLR 카메라를 '렌즈교환식 카메라'라고 통칭하지만 이는 틀린 표현이다. '디지털 일안 반사식(Digital Single Lens Reflex)'의 준말인 DSLR은 CCD나 CMOS에 맺히는 이미지를 뷰파인더에서도 똑같이 보기 때문에 '일안(Single Lens)'이란 단어와 이를 위해 거울을 이용한다고 해서 '반사식(Reflex)'이란 단어가 조합된 것이다. 과거 필름을 사용하던 SLR 카메라와 기본 구조는 같지만 필름 대신 CCD를 이용하고 메모리 카드 등에 데이터로 사진을 저장한다고 '디지털(Digital)'이 추가됐다.

'렌즈 교환식'이란 단어는 이런 SLR 카

메라만의 독특한 구조를 설명하지 못할 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DSLR 카메라 중 렌즈를 바꿀 수 없는 제품도 있어 '렌즈교환식' 카메라가 'SLR' 카메라는 아니다.

삼성테크윈, 영국디카시장서 2개월 연속 1위
삼성테크윈이 영국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서 2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최근 시장 조사 기관인 GFK에 따르면 삼성테크윈은 지난 6월 영국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서 점유율 14.2%로 국외 시장서 첫 1위를 차지한데 이어 7월에도 14.4% 전월 대비 0.2% 포인트가 늘어나 선두를 유지했다. 삼성테크윈에 이어 2위는 후지필름이 3위는 캐논, 세계 콤팩트 디지털 카메라 시장 강자인 소니는 4위로 나타났다.

올해 유럽 시장과 북미 시장 공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삼성테크윈은 영국 시장에서의 선전으로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 상승이 기대된다. 또 9월부터는 북미지역 대표적인 전자제품 유통업체인 서킷시티를 통해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컬러 레이저 'CLP-300' 중남미 최고 권위상 수상

삼성전자의 컬러 레이저 프린터 'CLP-300'이 '2006 PC 월드 라틴아메리카 어워드'에서 가정용 프린터 부문 최우수 제품으로 선정됐다. 이 상은 중남미 대표 IT매거진 PC월드 라틴지가 주관하며 디지털 제품의 혁신적인 기술과 독창적인 디자인 등을 고려해 시상하는 중남미 최고 권위의 상이다.

CLP-300은 올 초 유럽 최고 디자인 어워드 '2006 레드닷 디자인 상'을 수상했으며, 최근에는 일본 산업디자인진흥회의 '굿 디자인 어워드', 인체공학적 디자인을 가진 제품에 수여되는 독일 '어고노믹 히트' 상을 받았다. 또 독일 칩사와 영국 시넷 등 매거진에서도 삼성 CLP-300 디자인뿐만 아니라 작은 크기와 저소음 설계 등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렸다.

캐논, 감광드럼 특허 분쟁서 최종 승리

일본 캐논이 삼성전기·파켄OPC를 대상으로 낸 레이저프린터 감광드럼(OPC)특허권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 이에 따라 생산 중단·손해 배상 등 국내 업체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고현철 대법관)는 지난 10월 12일 "감광 드럼 제조 방식의 특허권을 침해한 만큼 완제품과 반제품을 모두 폐기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며 캐논사가 삼성전기와 파켄OPC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판결문에서 삼성전기에 3억 2000여만 원을, 파켄OPC에 18억 2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올해 기준 연 1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국내 레이저프린터용 토너카트리지 재활용 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 국내에서 OPC를 생산하고 있는 곳은 파켄OPC·백산OPC 등 5~6개. 특히 캐논의 경우 OPC 대부분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 HP에 공급하는 상황 이어서 국내 업체는 전체 70%에 달하는 시장을 잃게 될 전망이다.

로열티와 피해 보상을 통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지만 로열티만 모델 당 수십억 원으로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 뿐 아니라 매출액의 절반가량을 해외로 수출하는 국산 업체의 수출 감소도 불가피해 이번 판결로 인한 국내 업체의 피해는 일파만파로 퍼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업체는 이번 판결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종철 한국재활용카트리지협회 사무국장은 "이번 판결에 따라 일부 업체는 심각한 경영 위기에 놓일 것"이라며 "해의 재활용 협회와 연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캐논은 2001년 8월 자사 특허 제품과 동일한 토너카트리지를 생산하는 삼성전기를, 2002년 5월에는 삼성전기로부터 생산공장을 인수한 파켄OPC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며 1,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